

AEIP가 전판 측정에 알맞는 전기적 안정을 일는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AEIP가 아이리스값(Iris Reading) 재현 능력 시험에서는 아이리스가 자동 제어되었을 때는 등급의 표준 편차가 $\pm 0.075^m$ 정도이고, 수동 제어되었을 때는 이의 $\frac{1}{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적인 성능 결과를 토대로 Dupuy and Zukauskas(1976)가 관측한 산개 성단 Byur 2의 사진 전판을 측정하여 이들의 측광 결과를 비교하여 AEIP의 실제적인 측광 성능을 알아보았다.

전체사진전판의 진보된 영상 재현법

전 영 범

천문대 응용천문연구부

천문용의 전판은 영상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농도범위 (dynamical range)가 10^4 배 이상 되는데 반하여 이를 가시적으로 재현하는 인화지의 경우 불과 50배 이하의 농도 범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천문용의 전판에 들어있는 미약한 정보나 아주 농도가 짙게 얹어진 정보는 가시적으로 재현하기가 어렵다. 이에 몇 가지 암실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백산 천문대의 61 cm 망원경으로 얻은 전판들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주요 방법은 아주 큰 농도 범위를 보통의 인화지에 재현하여 전체의 자세한 구조를 보여주는 “Unsharp Masking” 방법과 아주 희미하여 전판상에서 조차 드러나지 않는 상을 부각시켜 주는 “Image Amplification” 방법이 있다. 또한 B, V, R 삼색 전판을 합성할 경우 천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을 재현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필름들이 필요하며, 많은 경험을 통한 자료와 기술의 숙련이 필요하다.

음향광학 효과를 이용한 전파분광기에 관한 연구

임 안 성, 서 정빈, 김 광동, 정 현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

우주전파신호 분석을 위한 음향광학 전파분광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시스템은 우주로부터 수신된 미약한 전파신호를 분석하는 신호처리 장치로 레이저 공진기, 광학계, 광편향소자와 CCD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기존의 필터뱅크, 자기상관 분광기와는 달리 레이저와 광학계를 사용하여 빔을 유도하고 전파신호를 광편향소자에 의해 초음파로 변환하여 레이저빔을 회절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전파 분광기이다. 광원으로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1GHz에서 2GHz까지의 광대역 광편향소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광신호 검출을 위해 2048 채널의 CCD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공진기를 이용한 광학계의 설계, 광편향소자에 의해 회절된 신호의 측정등에 대해 논의한다.